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분석

- 『한국기록관리학회지』(2001년-2010년)를 중심으로 -

A Reference Study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of 2001-2010

정연경(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4. 피인용 문헌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1 자료 유형 |
| 1.2 연구 설계 및 제한점 | 4.2 언어 |
| 2. 이론적 배경 | 4.3 발행국 |
| 2.1 정보의 계량화와 인용 분석 | 4.4 연구 형태 |
| 2.2 선행 연구 | 4.5 수명 |
| 3. 원문헌 분석 | 4.6 최다 피인용 자료 |
| 3.1 키워드 | 5.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 3.2 언어 | 6. 결론 |
| 3.3 연구 형태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대표 학술지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과 그 논문의 참고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연구자들의 인용 행태와 특성 및 변화를 밝힌 것이다. 조사대상 학술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로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 기간은 2001년~2010년(창간호-제10권 제2호)으로 하였다. 총 1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언어, 연구 형태를 조사, 분석하였고, 논문에 실린 참고문헌 3,893편에 관해서는 자료유형, 언어, 발행국, 연구 형태, 수명, 최다 피인용 자료를 조사하여 원문헌과 피인용 문헌에 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향후 기록관리학의 발전 방향과 후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trend of ci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field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subject of each citing and cited reference that appear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2001-2010. One hundred and seventy one research articles were analyzed by keyword, language, and research collaboration. Three thousand and eight hundred and ninety three cited references were analyzed by type of material, language, country of publication, research collaboration, citing age and the most frequently cited literature. Finally, those results of source literature and cited reference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a better direction for the future of the field with further studies was suggested.

키워드: 기록관리학, 원문헌, 피인용 문헌, 인용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연구 형태, 자료 수명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ource Literature, Cited References,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Collaboration,
Citing Age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ykchung@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11년 4월 13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5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367-391, 2011. [DOI:10.4275/KSLIS.2011.45.2.36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목포대에 기록관리학 협동 과정이 개설되고 이제는 전국에 20개가 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률의 제정은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기록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학문의 정립과 교육과정 개설, 학회의 설립까지 가져왔다.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가 설립되면서 2000년부터 한국기록학회는 『기록학 연구』를,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01년부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학회지가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으며 학회지를 통해 기록관리학에 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축적되면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학문의 발전과 소통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학문을 연구하는 인력의 증가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논문의 발표라고 할 수 있다. 계속 늘어나는 학술 논문의 수는 원활한 학문 소통을 의미하며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학문적 토대를 단단히 만들게 된다. 모든 연구의 주제는 개인적인 학문적 관심을 바탕으로 하지만 해당 학문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학회지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소통에 관한 분석은 해당 학문의 다양한 발전상을 시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조인숙과 한미숙(2007)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일정 기간 수행된 학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

는 것은 해당 학문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지식의 생산인 논문이 수집되고, 유통되며 확산되는 소비과정인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바로 학술지라고 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학술지를 바탕으로 기록관리학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이 장로사와 김유승(2009), 남태우와 이진영(2009),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 김규환과 남영준(2009)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는 학회지에 실린 원문헌만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참고한 문헌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주나 참고문헌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유용하게 쓰인 문헌으로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연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해당 분야의 유용한 자료를 밝혀주는 것이다. 이러한 피인용 문헌도 정량적으로 함께 분석해야만 해당 분야의 특징이나 다양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서 이제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전문학술지 논문에 실린 원문헌과 피인용 문헌을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할 시점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실린 논문 총 171편과 피인용 문헌 총 3,893편을 바탕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 행태를 살펴보고 기록관리학 분야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한 후, 향후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다.

1.2 연구 설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선정하여 지난 10

년 동안 게재된 총 171편의 논문과 총 3,893개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원문헌과 참고문헌은 연구자가 게재 논문을 학회지에서 일일이 조사한 후,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분석 요소인 키워드, 언어, 연구형태, 저자명, 자료 유형, 발행국, 발행년, 표제명으로 항목을 만들어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각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원문헌과 피인용 문헌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원문헌에 관한 연구 문제로는 첫째, 원문헌에서 저자가 부여한 주된 키워드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둘째, 원문헌의 주된 언어는 무엇인가? 셋째, 원문헌은 주로 어떤 연구 형태로 진행되었는가? 로 정했다. 피인용 문헌에 관한 연구 문제로는 첫째, 피인용 문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문헌의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피인용 문헌에서 주로 사용된 언어는 무엇인가? 셋째, 피인용 문헌의 주된 발행국은 어디인가? 넷째, 피인용 문헌에서 주된 연구 형태는 무엇인가? 다섯째, 피인용 문헌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 여섯째, 가장 많이 인용된 국내의 문헌은 무엇이고, 가장 많이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는 무엇인가? 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원문헌과 피인용 문헌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기록관리학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다루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나오는 다른 학회지로 한국기록학회에서 발간되는 『기록학연구』가 있는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만을 바탕으로 해당 학회지에 나타난 원문헌과 피인용 문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록학연구』를 대상 학술지

로 분석하는 경우,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을 『한국기록관리학회지』로 제한해서라도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이들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10년간 학술지 논문에 나타난 변화를 시계열로 함께 비교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의 계량화와 인용 분석

학문의 지적 구조나 연구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서 나온 출판물에 반영된 문헌의 속성을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분야를 계량정보학 또는 계량서지학이라고 한다. 계량정보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는 첫째, 문헌을 생산한 저자에 대한 주제 분야별, 기관별, 국가별 등 저술 및 생산량의 양적 증가나 추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문헌의 출처와 근원에 대하여 국가별, 연구기관별, 언어별, 주제별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 논문수 및 분포, 퇴화율, 인용 문헌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계량정보학의 주요 연구주제로는 특정 주제 분야 논문의 학술지 안 분포 상황에 관한 연구, 주제 분야의 문헌 이용률 감소와 관련된 연구, 주제 분야의 발달 및 성장에 관한 연구, 저자의 인용문헌 구조에 관한 연구, 문헌의 언어, 출판년, 출판국, 주제 형태 분석 및 문헌의 증가율 분석, 저자의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문헌들의

주제 분류, 저자의 인용문헌 패턴 및 특정 주제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 저자의 생산성 및 공동 저작 상황 파악 등 여러 측면에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정동열, 김성진 2010).

인용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동료 집단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헌의 존재를 각주나 참고문헌의 형식으로 알려주고 지지를 구하면서 연구의 신뢰도와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문헌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인용 분석이란 인용된 문헌과 인용한 문헌과의 관계와 인용 패턴을 통한 규칙성을 연구하는 계량정보학의 한 분야이다. 인용이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인용을 질적인 측정 데이터로 삼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인용을 통해 이전 연구자에 대한 기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조인숙과 한미숙(2007)은 인용 분석이 연구결과나 학회지를 평가하며, 학술생산성, 학술커뮤니케이션, 문헌의 지적구조, 주제영역, 저자생산성 분포, 학회지의 노화현상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되며, 연구자에게 있어서 관련 분야의 주요 문헌과 선행 연구를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용 분석은 연구자나 학술기관, 출판물 등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왔으며 특히 학술지의 신규 구독이나 계속 구독 여부와 폐기 등을 결정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어왔다.

2.2 선행 연구

기록관리학이란 학문의 연구 동향이나 인용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희정(2005)

은 저자 동시인용분석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간된 국내외 미국의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중심으로 핵심 저자군을 선정하였다. 저자지도를 바탕으로 지적 구조를 확인하였는데,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 영역은 기록관리학 관련 법 제도, 정책 분야에 집중되어있는 반면에 미국의 기록관리학은 전자기록물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김희정(2006)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 연구 영역에 관한 12건의 연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1980년대는 기록물과 기록관 중심의 연구, 1990년대는 전자기록물과 정보시스템 중심의 연구, 2000년대는 디지털 환경과 정보기술, 인접 학문과의 결합이 강조되는 학제적 연구로 시대별 연구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재윤과 문주영, 김희정(2007)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간된 국내 문헌정보학 영역의 대표 저널 5종에 선정된 기록관리학 논문 145건을 중심으로 문헌 클러스터링과 문헌유사도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기록관리학 연구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학 영역의 핵심 주제 영역은 전자기록물관리, 디지털 보존,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기록물 기술과 목록, 기록관리교육이었으며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로사와 김유승(2009)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 중심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논문은 총 99건으로 양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주제 영역은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정

보 공개에 관한 것이었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기록관리 전문 학술지 4종에 실린 논문 399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록관리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법률, 제도, 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로 밝혀졌으며 논문의 생산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기록관리학 전반적인 주제 분야를 망라적으로 모두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김규환, 장보성과 이현정(2009)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전문학술지 3종에 실린 연구논문 334개를 선정하여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키워드의 역할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물, 기록물관리, 정책/제도, 시스템, 체계/체제, 기관, 분류/목록/기술, 표준/표준화, 정보서비스, 아카이브즈/아카이빙, 장치/장비/용품, 기준/규정/규칙, 인력이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핵심 연구대상으로 드러났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지 3종에 실린 374편의 논문으로부터 주제 영역과 연구시기, 학회지, 연구자의 소속 및 전공을 추출하여 연구배경 및 연구자 특성에 따른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주제 영역의 분포와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 영역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회지마다 특정 주제 영역을 갖고 있으며 연구자 소속기관에 따른 특정 주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로 Cox(1987)는

1901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에서 수행된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901년부터 1936년까지 태동기, 1936년부터 1972년까지 형성기, 1972년부터 1986년까지 성숙기로 구분하였으며 주된 연구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Brichford(1988)는 1957년, 1967년, 1977년, 1986년 발행된 *American Archivist*에 수록된 103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기록관리학의 주요 연구 영역을 진본성, 평가, 정리, 기술, 물리적 보존, 설립과 활용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Gilliland-Swetland(1992)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 6종을 대상으로 136개 논문을 인용 분석하여 기록관리학의 영역을 문헌정보학, 기록관 및 기록관리, 컴퓨터, 역사,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Couture와 Ducharme(2005)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출간된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기록관리학의 주요 연구 영역으로 기록관리학의 목적, 기록관과 사회, 기록관과 기록관리학의 역사, 기록물 기능,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 경영, 기술, 매체와 기록관 유형, 기록관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Kim과 Lee(2008)는 기록관리학의 지적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록관리학 분야의 논문 432편을 43개의 클러스터로 분석하고 7개의 주제 영역으로 나누었다. 7개의 주제 영역은 다시 3개의 대표 영역으로 합쳐졌는데, 디지털 도서관, 기록물, 레코드 정보 경영으로 기록관리학 영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으로부터 연구 주제 영역과

간행시기, 학회지, 연구자의 소속 및 전공을 추출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에 대해 제시하는데 그친 반면, 국외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온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그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바탕으로 학문의 연구동향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인용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후속 연구로서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지 논문의 인용문헌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 기록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물론 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까지 모두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원문헌의 분석 내용과 피인용 문헌의 분석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기록관리학 연구자의 인용 행태와 특성을 시간적 흐름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3. 원문헌 분석

원문헌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대상은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 학회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수집범위는 2001년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총 10권, 20호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창간호에 수록된 발간사와 축사를 제외한 총 171편의 논문이다.

3.1 키워드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논문에 제시한 키워드

를 바탕으로 기록관리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핵심 키워드 출현 빈도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제3권 제2호까지 논문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키워드가 기재되지 않은 논문 52편은 제외하고 2004년 1호부터 2010년 2호까지 게재 논문 119편에 수록된 국문 키워드 총 429개를 분석하였다.

〈표 1〉 출현 빈도에 따른 키워드 순위
(3회 이상)

순위	키워드	개수	비율
1	기록관리	14	2.66%
2	기록정보서비스	11	2.09%
3	기록관	6	1.14%
	보존		
6	전자기록물	5	0.95%
	국가기록원		
8	기록관리메타데이터	4	0.76%
	대학기록관		
	평가		
11	기능분류	3	0.57%
	기록관리교육		
	기록물		
	대통령기록관		
	메타데이터		
	장기보존		

〈표 1〉과 같이,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순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키워드는 ‘기록관리’로 14회(2.66%), 그 다음으로는 ‘기록정보서비스’가 11회(2.09%), ‘기록관’과 ‘보존’, ‘전자기록물’이 각각 6회(1.14%)로 나타났다. 2회 이하로 출현한 나머지 376개의 키워드는 유사하지만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각각 다른 주제 키워드로 인식된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으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기

록관리'와 '기록물', '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 '보존'과 '장기보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와 같이 각각의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가 동일한 의미일수도,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논문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고 검색의 용이성을 제공하는 키워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문작성자인 저자에게 키워드 선정 원칙과 함께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는 통제어 리스트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3.2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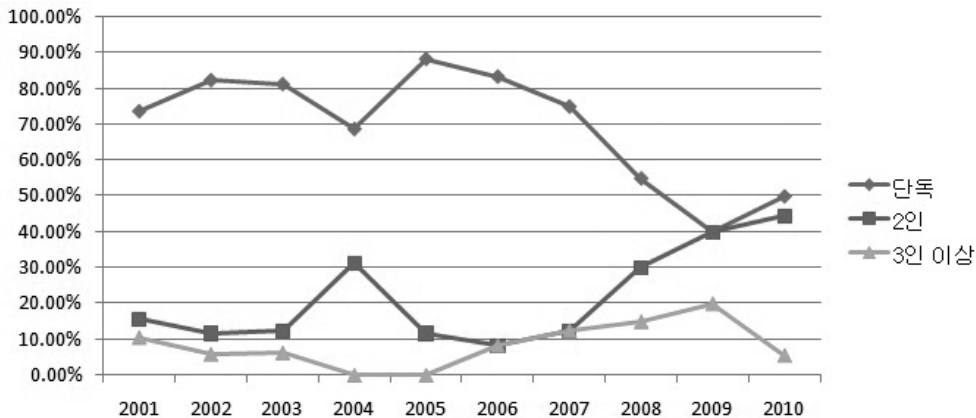
171편의 논문 중에서 한국어로 쓰인 논문은 169건(98.83%)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2건(1.17%)이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논문의 주된 저자들이며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어가 가장 편하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논문의 내용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보다 폭넓은 교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영어논문의 투고를 독려하고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국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3.3 연구 형태

171개의 논문 중에서 단독저자의 논문은 117건(68.42%), 2인 공동 저자의 논문은 39건(22.81%), 3인 이상의 공동 저자는 15건(8.77%)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태우와 이진영(2009)의 연구에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술지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라고 한 결과를 확인시켜주었으며, 공동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연도별로 단독 연구와 2인 연구, 3인 이상 연구 유형의 추이를 보면, 단독 연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2인 연구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이는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공동 연구가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루며 이루어져 실용적인 방향으로 갈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후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원문헌의 시기별 연구 유형 추이

4. 피인용 문헌 분석

피인용 문헌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대상은 원 문헌 171편의 논문에 실린 총 3,893개의 참고 문헌이다.

4.1 자료 유형

자료의 유형은 고서, 공문서, 규격/표준/지침, 단행본(인쇄), 단행본(전자), 단행본(챗터), 번역서, 법령/시행령/규정, 보고서(인쇄), 보고서(전자), 서신/면담, 신문기사, 학술지(인쇄), 학술지(전자), 웹문서,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집(인쇄), 학술대회 발표논집(전자),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고서는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 조선 시대까지의 발간된 고문서와 고도서를, 공문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예규', '예규철', '약정문', '각서' 등으로 보았다. 규격/표준/지침은 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발간된 자료로서 서명에 '지침', '표준(Standard)', '가이드라인(Guideline)', 'Toolkit', 'Specification'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단행본(인쇄)는 규격/표준/지침, 번역서, 보고서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ISBN이 부여된 자료로 하였다. 단행본(전자)는 단행본(인쇄)와 같은 기준이지만 저자가 'URL'로 기재한 자료로 하였다. 단행본(챗터)는 단행본(인쇄)의 특정 장이나 절을 인용한 경우로 하였다. 번역서는 원래 국역과 외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서의 외역본은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서의 국역본만 포함시켰다. 법령/시행령/규정은 국내외 기록관리 관련 법률이나 법령, 시행령, 규정 등을 포함시켰다. 보고

서(인쇄)는 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발간한 자료로 ISBN이 없는 회색 문헌으로 보고서, 연감, 백서 등을 분류하였다. 보고서(전자)는 보고서(인쇄) 유형으로 저자가 'URL'을 기재한 자료로 하였다. 서신/면담은 특정 사람과의 이메일이나 면담 내용을 담은 것이며, 신문기사는 국내외 일간지 신문에 실린 기사로 분류하였다. 학술지는 ISSN이 있으며, 정기·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잡지, 대중잡지,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하였다. 학술지(인쇄)와 학술지(전자)의 경우, 저자가 URL을 기술한 전자형태로 나오는 학술지의 경우만 학술지(전자)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논문을 쓴 저자가 dbpia와 같이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술지 논문을 이용했더라도 URL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학술지(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웹문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웹사이트, 링크를 일일이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보고서, 단행본, 법령/시행령/규정, 신문기사, 발표논집, 규격/표준/지침 등 여타의 어느 자료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웹문서로 분류하였다. 학위논문은 대학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대회 발표논집은 회의나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한 논문에 한하여 분류하고, URL의 기재 유무에 따라 학술대회 발표논집(인쇄)와 학술대회 발표논집(전자)로 구분하였다. 기타는 피인용 문헌의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자료 유형 판단이 불가능한 자료 2건과 초·중등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1건이 해당되었다.

전체 171편의 연구논문에 총 3,893건의 피인용 문헌이 수록되어 학술지 논문 1편에 평균 22.77건의 참고문헌을 인용하고 있었다. 학술

지(인쇄)가 1,142건(29.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행본(인쇄)가 621건(15.95%), 웹문서 422건(10.84%), 규격/표준/지침 341건(8.76%), 법령/시행령/규정 314건(8.07%), 보고서(인쇄) 267건(6.86%), 학위논문 197건(5.06%), 학술대회 발표논집(인쇄) 175건(4.50%), 번역서 107건(2.75%), 보고서(전자) 100건(2.57%), 고서 61건(1.57%), 단행본 챗터 57건(1.46%), 신문기사 26건(0.67%), 공문서 20건(0.51%), 학술대회 발표논집(전자) 18건(0.46%), 학술지(전자) 16건(0.41%), 서신/면담 5건(0.13%), 기타 3건(0.08%), 단행본(전자) 1건(0.03%)에 해당하여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자료의 유형이 학술지(인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연도별 피인용 문헌의 자료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 시기를 중심으로 제 1기(2001-2005)와 제 2기(2006-2010)로 나누고 그 안에서 매년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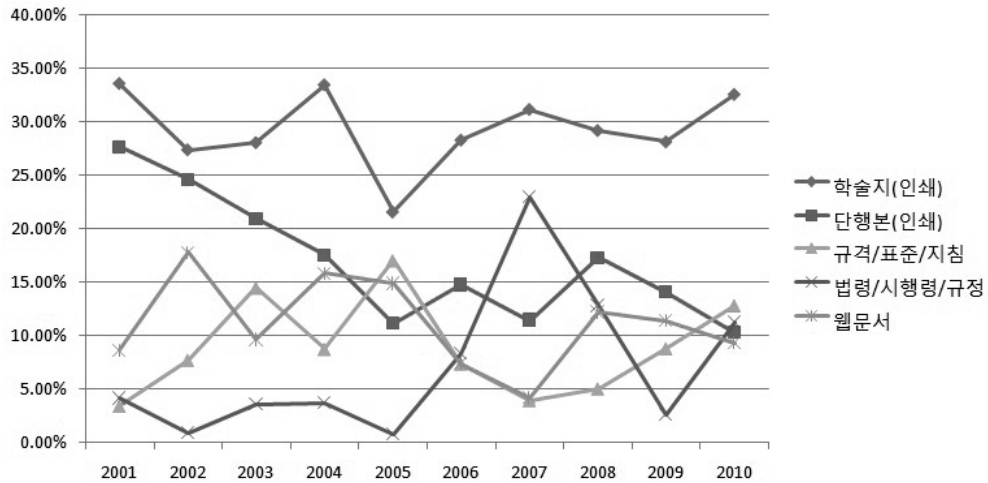
학술지(인쇄)가 10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자료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단행본(인쇄)이 그 다음이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자료 유형 5개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학술지 인쇄 자료는 2005년에 급격하게 인용이 줄었다가, 점차 높아졌으며, 규격, 표준, 지침은 2008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단행본 인쇄 자료는 2008년부터 인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한 인용이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2007년에 최고로 많이 이루어진 후,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표준이나 법령이 국내외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전자기록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지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계속 필요해서 앞으로도 많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표 2> 자료유형별 참고문헌의 수

자료유형	건수	비율	자료유형	건수	비율		
고서	61	1.57%	서신/면담	5	0.13%		
공문서	20	0.51%	신문기사	26	0.67%		
규격/표준/지침	341	8.76%	웹문서*	422	10.84%		
단행본	인쇄	621	15.95%	학술대회 발표논집	인쇄	175	4.50%
	전자*	1	0.03%		전자*	18	0.46%
	챗터	57	1.46%	학술지	인쇄	1,142	29.33%
번역서	107	2.75%	전자*		16	0.41%	
법령/시행령/규정	314	8.07%	학위논문	197	5.06%		
보고서	인쇄	267	6.86%	기타	3	0.08%	
	전자*	100	2.57%				
합계: 3,893건(100.00%)							

* URL로 기재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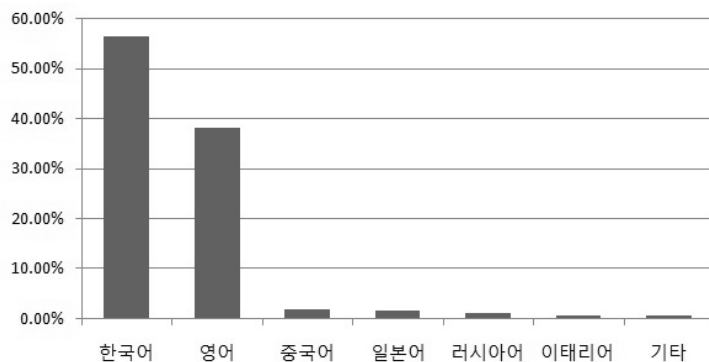
〈그림 2〉 자료 유형별 참고문헌의 추이

4.2 언어

언어는 피인용 문헌에 기재된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피인용 문헌 중에서 한국어로 쓰인 논문은 2,201건(56.54%)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1,485건(38.15%), 중국어 68건(1.75%), 일어 61건(1.57%), 러시아어 36건(0.92%), 이탈리아어 20건(0.57%) 등의 순이었다. 3,893건의 피인용 문헌에서 언어별 분포는 〈그림 3〉과 같

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군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가 영어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문헌의 발행 시기를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피인용 문헌의 언어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05년까지는 대체로 한국어보다 영어로 된 자료를 더 많이 참고한 반면, 2006년부터는 한국어 자료를 더 활발하게 참고



〈그림 3〉 피인용 문헌의 언어별 분포

〈표 3〉 연도별 피인용문헌의 언어 분포

(단위: 건수, 괄호 안은 비율(%))

언어	1기(2001~2005)						2기(2006~201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한국어	97 (33.56)	59 (26.94)	150 (48.39)	151 (51.01)	161 (42.93)	618 (41.50)	208 (66.88)	327 (76.58)	304 (57.25)	415 (66.72)	329 (64.13)	1,583 (65.85)
영어	130 (44.98)	155 (70.78)	158 (50.97)	98 (33.11)	194 (51.73)	735 (49.36)	101 (32.48)	86 (20.14)	194 (36.53)	190 (30.55)	179 (34.89)	750 (31.20)
중국어	19 (6.57)	1 (0.46)	-	3 (1.01)	10 (2.67)	33 (2.22)	1 (0.32)	-	33 (6.21)	1 (0.16)	-	35 (1.46)
일본어	28 (9.69)	3 (1.37)	2 (0.65)	20 (6.76)	1 (0.27)	54 (3.63)	1 (0.32)	1 (0.23)	-	-	5 (0.97)	7 (0.29)
러시아어	-	-	-	23 (7.77)	-	23 (1.54)	-	13 (3.04)	-	-	-	13 (0.54)
이태리어	4 (1.38)	-	-	-	-	4 (1.48)	-	-	-	16 (2.57)	-	16 (0.67)
기타	11 (3.81)	1 (0.46)	-	1 (0.34)	9 (2.40)	22 (0.27)	-	-	-	-	-	-
합계	289 (100.00)	219 (100.00)	310 (100.00)	296 (100.00)	375 (100.00)	1,489 (100.00)	311 (100.00)	427 (100.00)	531 (100.00)	622 (100.00)	513 (100.00)	2,404 (100.00)

한 것이 큰 변화이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기록관리학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였음을 의미한다.

4.3 발행국

발행국은 피인용 문헌을 출판한 국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한국어 2,211건(56.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미권 국가인 미국 878건(22.55%), 영국 203건(5.21%), 캐나다 102건(2.62%), 호주 98건(2.5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국가인 중국 71건(1.82%), 일본 63건(1.62%),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 50건(1.28%), 프랑스 45건(1.16%), 러시아 36건(0.92%), 이탈리아 29건(0.74%), 체코 22건(0.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발행국은 해당 국가의 자료가 5건 이하로 나타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말레이시

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벨기에, 인도 등이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발행된 자료가 전체 피인용 문헌에서 약 80% 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언어별 분포와 유사한 결과이다. 지난 10년간 발행국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41.84%에서 66.06%로 증가한 반면, 미국은 31.03%에서 17.30%로 감소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영어권 국가, 즉 영국, 호주, 캐나다 자료의 인용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는 2006년도로 들어가면서 감소하였는데, 일본은 3.69%에서 0.33%로 현저히 낮아졌다. 국내 연구가 증가하고 국내 자료에 대한 많은 인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영어권 이외의 국가, 특히 유럽, 아시아권 국가와 폭넓은 교류도 기록관리학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4.4 연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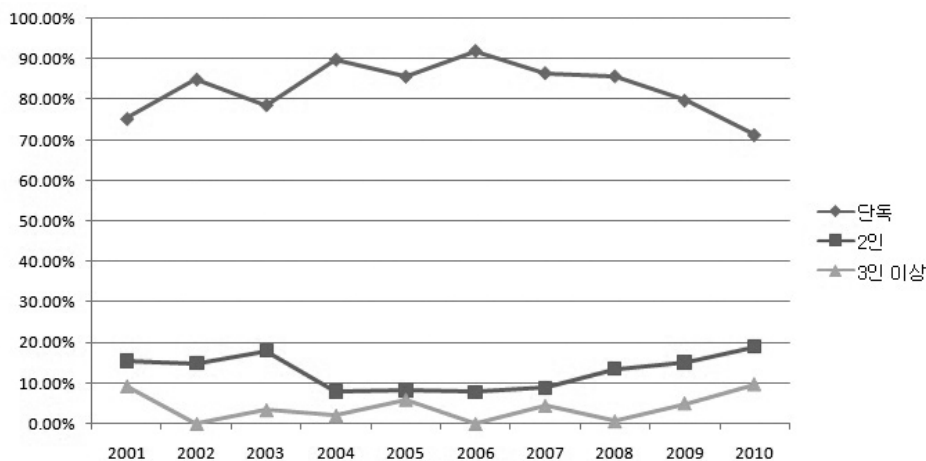
연구 형태는 피인용문헌의 저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술지의 경우, 단독 연구인지 아니면 공동 연구인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1,158건 중 단독 연구가 951건(82.12%)으로 가장 높았으며, 2인 공동 연구가 155건(13.39%), 3인 이상 공동 연구가 52건(4.49%)으로 나타나 단독 논문에 대한 인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헌의 발행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표 4>이며, <그림 4>는 10년간 피인용 학술지 논문의

연구 현황 추이를 보여주는데, 2007년도부터 단독 연구는 점차 감소한 반면, 2인 및 3인 이상의 공동 연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문헌 분석에서는 2인 공동연구의 증가 추세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피인용 문헌 분석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공동 연구의 증가 추세가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학문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인용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거쳐야겠지만, 학문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공동 연구가

<표 4> 연도별 피인용 학술지 논문의 연구 형태

(단위: 건수, 괄호 안은 비율(%))

학술지 (인쇄)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단독	73 (75.26)	51 (85.00)	70 (78.65)	89 (89.90)	72 (85.71)	355 (82.75)	81 (92.05)	116 (86.47)	133 (85.81)	142 (79.78)	124 (71.26)	596 (81.76)	951 (82.12)
2인	15 (15.46)	9 (15.00)	16 (17.98)	8 (8.08)	7 (8.33)	55 (12.82)	7 (7.95)	12 (8.96)	21 (13.55)	27 (15.71)	33 (18.97)	100 (13.72)	155 (13.39)
3인 이상	9 (9.28)	-	3 (3.37)	2 (2.02)	5 (5.95)	19 (4.43)	-	6 (4.48)	1 (0.65)	9 (5.06)	17 (9.77)	32 (4.53)	52 (4.49)
합계	97 (100.00)	60 (100.00)	89 (100.00)	99 (100.00)	84 (100.00)	429 (100.00)	88 (100.00)	134 (100.00)	155 (100.00)	178 (100.00)	174 (100.00)	729 (100.00)	1,158 (100.00)



<그림 4> 연도별 피인용 문헌의 단독/공동 연구 추이: 학술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4.5 수명

다양한 자료 유형 중에서 발행년을 분명히 제시한 단행본과 번역서, 보고서, 학위논문, 규격/표준/지침, 학술지를 중심으로 피인용 문헌의 수명을 측정하였다. 문헌의 수명은 원문헌의 발행년에서 피인용문헌의 발행년을 뺀 햇수로 보았다. 그리고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 시기를 중심으로 제 1기(2001-2005)와 제 2기(2006-2010)로 나누어 자료의 유형별 수명을 분석하였다.

4.5.1 단행본과 번역서

발행연도를 중심으로 피인용문헌의 수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단행본 챕터를 포함해서 단행본으로 인용된 문헌의 평균 수명은 11.90년, 번역서는 4.7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제 1기(2001-2005)와 제 2기(2006-2010)로 나누어 보면, 단행본은 제 1기 12.30년에서 제 2기 11.70년으로, 번역서는 제 1기 4.15년에서, 제 2기 4.85년으로 시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단행본과 번역서의 발행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2008-2010), 4~6년 이내(2005-2007), 7~9년 이내(2002-2004), 10년 이상 20년 미만(1992-2001), 20년 이상 30년

미만(1981-1991), 30년 이상(1980년 이전) 등 6개 구간으로 구분한 후, 각 구간별로 해당하는 문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먼저 단행본은 10년 이상 20년 미만(1992-2001)에 발행된 자료가 총 270건(39.76%)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제 1기와 제 2기에서 모두 높게 인용되었다. 다음으로는 20년 이상 30년 미만(1981-1991)이 115건(16.94%), 7~9년 이내(2002-2004)가 107건(15.76%)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단행본의 수명이 상당히 긴 것임을 알 수 있었다(〈표 6〉 참조).

번역서의 수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7~9년 이내(2002-2004)에 발행된 번역서가 72건(67.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1992-2001)이 22건(20.56%)으로 나타났다. 번역서의 수명도 비교적 길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SAA에서 1990년대 초반 기록관리학의 각 분야를 다루는 단행본 시리즈를 발행했고 이 시리즈를 진리탐구에서 번역서로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기록관리학의 분야별 교재가 개발되지 않아서 많은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분야별 기본 교재가 나오지 않아서 이 번역서의 개정판이나 다른 시리즈가 발행될 때까지 고전처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어서 번역서의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표 5〉 단행본과 번역서의 평균 수명

(단위: 년)

자료 유형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단행본	16.67	11.75	12.41	12.75	7.93	12.73	9.72	22.20	9.48	10.59	6.53	11.16	11.90
번역서	-	3.00	4.43	5.40	3.78	4.15	3.23	4.35	4.94	6.10	5.64	4.85	4.73

〈표 6〉 단행본 발간 시기별 인용 건수 및 비율

단행본 발행 시기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80년 이전	45	14.06%	26	7.24%	71	10.46%
1981-1991	83	25.94%	32	8.91%	115	16.94%
1992-2001	155	48.44%	115	32.03%	270	39.76%
2002-2004	36	11.25%	61	16.99%	107	15.76%
2005-2007	1	0.31%	71	19.78%	72	10.60%
2008-2010	-	-	44	12.26%	44	6.48%
합계	320	100.00%	359	100.00%	679	100.00%

〈표 7〉 번역서 발간 시기별 인용 건수 및 비율

번역서 발행 시기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80년 이전	-	-	-	-	-	-
1981-1991	2	8.34%	-	-	2	11.87%
1992-2001	11	45.83%	11	13.25%	22	20.56%
2002-2004	11	45.83%	61	73.49%	72	67.29%
2005-2007	-	-	9	10.84%	9	8.41%
2008-2010	-	-	2	2.41%	2	1.87%
합계	24	100.00%	83	100.00%	107	100.00%

4.5.2 보고서

보고서의 평균 수명은 제 1기(2001-2005년)는 4.80년, 제 2기(2006-2010년)는 4.13년으로 전체 평균 4.40년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피인용 문헌의 발행년을 중심으로 인용 현황을 파악하면, 10년 이상 20년 미만(1992-2001)이 110건(31.16%)으로 가장 많았으며, 4~6년 이내(2005-2007)가 100건(28.33%) 순으로 나타

났다(〈표 9〉 참조). 보고서의 수명은 단행본의 11.90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는데 이는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용이나 과제용 보고서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다. 원문헌의 발행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 1기에는 1992년에서 2001년 사이에 발행된 보고서의 인용이 높았고, 제 2기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된 보고서의 인용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연도별 보고서 평균 수명

(단위: 년)

자료 유형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보고서	2.86	8.29	3.45	4.23	5.31	4.80	1.74	6.43	4.89	4.29	3.62	4.13	4.40

〈표 9〉 보고서 발간 시기별 인용 건수 및 비율

보고서 발행 시기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80년 이전	1	0.70%	2	0.95%	3	0.85%
1981-1991	14	9.79%	5	2.38%	19	5.38%
1992-2001	82	57.34%	28	13.33%	110	31.16%
2002-2004	39	27.27%	36	17.14%	75	21.25%
2005-2007	7	4.90%	93	44.29%	100	28.33%
2008-2010	-	-	46	21.90%	46	13.03%
합계	143	100.00%	210	100.00%	353	100.00%

4.5.3 학위논문

학위논문의 평균 수명은 4.12년으로 제 1기는 4.61년, 제 2기는 4.06년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인용된 학위 논문의 발행연도를 중심으로 수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학위논문으로 인용된 문헌의 수명은 〈표 11〉과 같다. 이를 살펴 보면 7~9년(2002-2004) 사이에 발행된 학위

논문이 71건(36.04%)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4~6년(2005-2007)의 학위논문이 62건(31.47%)을 차지하였다.

4.5.4 규격/표준/지침

발행년이 기재된 규격, 표준, 지침 294건에 대한 평균 수명은 4.96년으로 제 1기는 5.83년, 제

〈표 10〉 연도별 학위논문 평균 수명

(단위: 년)

자료 유형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학위 논문	3.60	-	4.25	10.00	4.25	4.61	4.48	5.08	4.48	3.60	3.30	4.06	4.12

〈표 11〉 학위논문 발간 시기별 인용 건수 및 비율

학위논문 발행 시기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80년 이전	-	-	1	0.57%	1	0.51%
1981-1991	3	13.04%	1	0.57%	4	2.03%
1992-2001	11	47.83%	23	13.22%	34	17.26%
2002-2004	7	30.43%	64	36.78%	71	36.04%
2005-2007	2	8.70%	60	34.48%	62	31.47%
2008-2010	-	-	25	14.37%	25	12.69%
합계	23	100.00%	174	100.00%	197	100.00%

2기는 4.40년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이는 규격이나 표준, 지침이 국제적인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고 갈수록 개정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명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인용 규격, 표준, 지침 자료의 간행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4~6년(2005-2006)에 발행된 자료가 80건(27.21%)으로 가장 많았으며, 7~9년(2002-2004), 10년~20년(1992-2001)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제 1기에는 1992~2001년에 발행된 자료(41.74%), 제 2기에는 2005~2010년에 발행된 자료(40.22%)가 많이 참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4.5.5 학술지

발행년이 기재된 학술지 1,158건의 평균 수명은 7.43년으로 제 1기(2001~2005)에는 8.64년, 제 2기(2006~2010)에는 6.72년으로 조사되었다(〈표 14〉 참조). 전체적으로 10년~20년 이내(1992-2001)에 간행된 학술지 논문이 452건(39.03%)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2002~2004년이 245건(21.16%), 2005~2007년 211건(18.22%), 1981~1991년 117건(10.10%)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제 2기에 발행된 원문헌의 경우에도, 여전히 1992년에서 2001년까지 발간된 학술지 인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는 학술

〈표 12〉 연도별 규격/표준/지침 평균 수명

(단위: 년)

자료 유형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규격/표준/지침	5.20	8.59	9.54	7.35	2.51	5.83	3.37	2.00	9.09	4.38	3.68	4.40	4.96

〈표 13〉 규격, 표준, 지침의 발간 시기별 인용 건수 및 비율

규격/표준/지침 발행 시기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80년 이전	5	4.35%	3	1.68%	8	2.72%
1981-1991	14	12.17%	6	3.35%	20	6.80%
1992-2001	48	41.74%	17	9.50%	65	22.11%
2002-2004	40	34.78%	31	17.32%	71	24.15%
2005-2007	8	6.96%	72	40.22%	80	27.21%
2008-2010	-	-	50	27.93%	50	17.01%
합계	115	100.00%	179	100.00%	294	100.00%

〈표 14〉 연도별 학술지 평균 수명

(단위: 년)

자료 유형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학술지	13.39	10.62	5.53	8.15	5.61	8.64	6.41	6.75	7.28	7.17	5.90	6.72	7.43

〈표 15〉 학술지의 발간 시기별 인용 건수 및 비율

학술지 발행 시기	1기(2001~2005)		2기(2006~2010)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80년 이전	34	7.93%	9	1.23%	43	3.71%
1981-1991	63	14.69%	54	7.41%	117	10.10%
1992-2001	255	59.44%	197	27.02%	452	39.03%
2002-2004	72	16.78%	173	23.73%	245	21.16%
2005-2007	5	1.17%	206	28.26%	211	18.22%
2008-2010	-	-	90	12.35%	90	7.77%
합계	429	100.00%	729	100.00%	1158	100.00%

지 논문의 수명이 짧아 최신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것과는 달리, 기록관리 분야는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분석한 피인용 문헌의 유형별 평균 수명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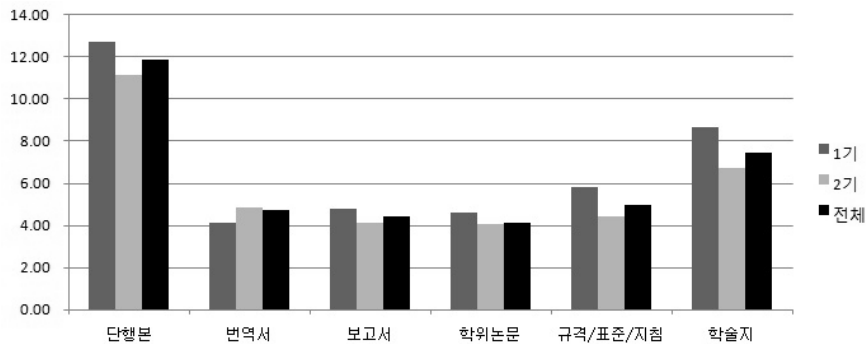
4.6 최다 피인용 자료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문헌 10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법령, 시행령, 규정'과 '단행본'이 각각 50%씩 차지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의 핵심 문헌이 학술지 논문보다는 법령이나 단행본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공문서규정'이 28회로 1순

위였으며, '사무관리규정'(21회),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20회) 순으로 인용되었다. 3~4순위에 해당하는 단행본 영어 자료 3개는 모두 국내에서 발행된 번역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 시행령 등이 기록관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번역서를 대체할만한 기록관리학 분야의 국내 학술 저서의 집필이 시급함을 암시한다.

4.6.1 단행본

번역서를 제외한 단행본 622개를 대상으로 인용이 많이 된 상위 5개 문헌을 분석한 결과,



〈그림 5〉 자료유형별 평균 수명

〈표 16〉 최다 피인용 자료(전체)

순위	서명	자료유형	인용 수
1	정부공문서규정	법령/시행령/규정	28
2	사무관리규정	법령/시행령/규정	21
3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¹⁾	단행본	20
4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²⁾	단행본	18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al and Manuscripts ³⁾	단행본	18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법령/시행령/규정	18
7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법령/시행령/규정	16
	기록학개론	단행본	16
	기록학용어사전	단행본	16
10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법령/시행령/규정	15

국내서인 ‘기록학개론’과 ‘기록학용어사전’이 16건(2.57%), ‘기록관리학사전’과 ‘한국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가 10건(1.61%)으로 많이 인용되었다(〈표 17〉 참조). 상위 10개 문헌에서는 외국 자료보다 국내 자료가 많았으며, 단행본 중에서도 개론서와 사전류의 인용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번역서는 전체 107개 번역서 중 ‘기록정

보서비스’의 인용이 가장 높았으며,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현대기록학개론’,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기록의 이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그러나 많이 인용된 번역서의 대부분이 SAA(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에서 발행한 개론서로 출판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좀 더 최근에 나온 원서를

〈표 17〉 최다 피인용 단행본(번역서 제외)

순위	서명	인용 수	비율
1	기록학개론 ⁴⁾	16	2.57%
	기록학용어사전 ⁵⁾	16	2.57%
3	기록관리학사전 ⁶⁾	10	1.61%
	한국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⁷⁾	10	1.61%
5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⁸⁾	8	1.29%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⁹⁾	8	1.29%
	한국기록물관리제도의이해 ¹⁰⁾	8	1.29%

1)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 Miller, Fredric M. 1990.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3) Pugh, Mary Jo.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al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표 18〉 최다 피인용 번역서

순위	번역서명(원서명)	인용 수	비율
1	기록정보서비스 ¹¹⁾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al and Manuscripts)	13	12.15%
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¹²⁾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12	11.21%
	현대기록학개론 ¹³⁾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12	11.21%
4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¹⁴⁾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8	7.48%
5	기록의 이해 ¹⁵⁾ (Understanding Archives and Manuscripts)	6	5.61%

번역하여 참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6.2 학술지

학술지 논문으로는 국내 학술지 685종, 국외 학술지 473종을 포함하여 총 1,158종의 학술지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인용빈도가 전체 2% 이상 되는 국내외 학술지는 9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내학술지로는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국가기록연구』와 외국학술지인 *American Archivist*, *Archivaria*, *Archival Science*가 기록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학술지로 나타났다.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학술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기록관리학 분야의 국내 학술지 중에서 『기록학연구』가 가장 많은 인용빈도를 나타냈으

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국가기록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서지학회지』와 같은 문헌정보학과 서지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 모두가 상위권에 들어서 기록관리학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인용빈도가 많은 상위 10개 국외학술지는 〈표 20〉과 같다. *American Archivist*가 91건(19.24%), *Archivaria*가 53건(11.21%), *Archival Science*가 24건(11.21%)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어서 국내 기록관리분야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중요한 국외 학술지임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도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가 꽤 포함되어 두 학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 4) 최정태.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5)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6) 최정태 외. 2005. 기록관리학사전. 파주: 한울.
- 7) 박건홍. 2003. 한국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서울: 역사비평사.
- 8) Bellardo, Lewis and Ballardo, Lynn Lady. 1992.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9) Pearce-Moses, Richard. 2005.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10) 이원규. 2002. 한국기록물관리제도의이해. 서울: 진리탐구.
- 11) Pugh, Mary Jo. 2004. 기록정보서비스. 설문원 역. 서울: 진리탐구.
- 12) Miller, Fredric M.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 13) Schellenberg, Theodore R. 2002. 현대기록학개론. 이원영 역. 서울: 진리탐구.
- 14) Ham, Gerald F.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강경무 역. 서울: 진리탐구.
- 15) O'Toole, James M. 2004. 기록의 이해. 이승익 역. 서울: 진리탐구.

〈표 19〉 최다 피인용 국내 학술지(상위 10개)

순위	학회지명	인용 수	비율
1	기록학연구	144	21.02%
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14.89%
3	국가기록연구	86	12.55%
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	5.55%
5	정보관리학회지	34	4.96%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8	4.09%
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	2.92%
8	서지학연구	14	2.04%
9	정보관리연구	13	1.90%
10	국회도서관보	8	1.17%

〈표 20〉 최다 피인용 외국 학술지(상위 10개)

순위	학회지명	인용 수	비율
1	American Archivist	91	19.24%
2	Archivaria	53	11.21%
3	Archival Science	24	5.07%
4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	4.86%
5	Journal of Society of Archivists	23	4.86%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16	3.38%
7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15	3.17%
8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8	1.69%
	D-LIB	8	1.69%
10	Records Management Journal	7	1.48%

5. 종합 분석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1년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총 171편의 논문과 여기에 수록된 총 3,893개의 참고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헌에 수록된 각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기록관리’, ‘기록관’, ‘기록물’과 같이 매우 포괄적인 용어가 많았고, 키워드의 유사어나 동의어가 많아 서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체 연구의 흐름을 파악

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저자가 부여하는 키워드가 연구 주제의 특정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도 있지만, 저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키워드가 채택될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학회지 차원에서 키워드 선정 원칙을 세우고, 키워드를 부여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통제어휘집을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키워드 검색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주제 분석 및 동향 파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원문헌에서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국어 논문이었는데, 언어는 학술지와 논문의 국제화에 관한 요소로 학술지 평가와 편집위원회 논문 심사 및 선정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내 연구자가 외국어로 논문을 써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국외 연구자가 외국어로 쓴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제출하기에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었기 때문에 학회지의 국제화를 지향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학회지의 입지를 국내외에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외국어 논문 투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편집 정책과 학술지 평가가 학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원문헌의 주된 연구 형태는 단독이 68.42%로 주를 이루었으나, 2인 공동 연구가 22.81%, 3인 이상의 공동 연구가 8.77%로 나타났다. 또한 2인 연구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 연구의 추세는 국내외의 전반적인 학문 활동의 추세이며 기록관리학은 이론이 실무에 반영되고 접목되어야 하는 실용 학문으로서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 간의 공동 연구를 더욱 진작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문의 융·복합화와 함께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피인용 문헌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자료 유형 분석에 따르면, 학술지(인쇄)의 인용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행본(인쇄)로 나타났다. 학술지(인쇄)와 단행본 자료의 인용이 높은 것은 기록관리학 분야가 인문·사회과학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피인용 문헌의 자료 유형이 매우

다양하였고 각 유형별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록관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야하며 인용 행위를 통해 연구 내용의 신뢰와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또한 자료 유형별 인용 변화 추이를 보면, 규격/표준/지침이 2008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이 부분이 갈수록 강조되는 연구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피인용 문헌의 언어와 발행국은 국내 연구자의 외국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알 수 있는 요소로 영어권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타 언어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제일 익숙한 외국어가 영어라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의 자료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영미권 중심의 기록관리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2006년 이후부터 국내 자료에 대한 인용이 급증한 것은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과 함께 국내에서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보다 확고해졌음을 반영해 준다. 발행국도 영미권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최다 피인용 외국 학술지 상위 10개 중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행되서, 미국 학술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피인용 문헌에 나타난 연구 형태는 2007년부터 단독 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2인 및 3인 이상의 공동 연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문헌의 연구 형태 결과보다 훨씬 더 확실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연구의 증가는 앞으로는 학문 분야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의 수행이 필수적인 학문 연구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피인용 문헌의 자료 유형별 수명은 단행본과 학술지의 평균 수명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 특히 단행본의 수명이 가장 길었는데, 단행본 중 인용이 많이 된 자료는 주로 개론서와 용어집에 국한되어 있었다. 실제로 개론서는 학문의 기본 이론과 기법을 설명하고, 용어집·사전류는 기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많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앞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의 우수 저서의 집필이 이루어지고 이를 인용함으로써 단행본의 수명이 길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학술 저서의 출간이 활성화되어 기록관리학에 관한 단행본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우수한 국내 전문 학술저서가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문헌 10개는 '법령, 시행령, 규정'과 '단행본(인쇄)'가 차지하였고 SAA에서 발행된 번역서가 많이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령이나 시행령, 규정이 많이 인용된 것은 학문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서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발행된 번역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대체할만한 국내 학술 저서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향후 기록관리학에 관한 분야별 전문 학술 저서의 간행이 시급하며 우수 학술 저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저서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용빈도가 높은 국내외 학술지는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국가기록연구』, *American Archivist*, *Archivaria*, *Archival Science*였으며 이외에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와 같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가 모두 상위권에 들어가서 기록관리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술지를 바탕으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실린 171개의 논문과 3,893개의 피인용 문헌을 분석하여 해당 학회지를 통한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 행태와 해당 분야의 10년간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원문헌의 경우, 키워드 분석으로는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언어는 한국어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술지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공동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록관리학이란 학문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인용 문헌의 경우, 학술지(인쇄)와 단행본 자료의 인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기록관리학 분야가 인문·사회과학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또한 자료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기록관리학이 매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격/표준/지침의 인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의 표준이나 지침이 강조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영어 자료를 통해 영미권 중심의 기록관리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내 자료에 대한 인용이 20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기록관리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과 함께 국내에서 기록관리학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연구 형태는 원문헌 분석 결과보다 더 확실하게 공동 연구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자료 유형별 수명은 단행본과 학술지의 평균 수명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이 인용되는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우수 학술 저서의 수명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번역서가 많이 인용된 것은 국내 전문 학술 저서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향후 기록관리학에 관한 국내 전문 학술 저서의 간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빈도가 높은 국내의 학술지는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국가기록연구』, *American Archivist*, *Archivaria*, *Archival Science*였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도 그 뒤를 이어 기록관리학과의 밀접한 연관성

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논문 키워드의 표준화, 학술지의 국제화, 공동 연구의 지속적인 증가, 다양한 언어권 국가와의 국제 교류, 국내 연구의 내실화, 우수 학술 저서의 간행,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공조 등이 향후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후속 연구의 하나로 『기록학연구』, 『국가기록연구』, *American Archivist*, *Archivaria*, *Archival Science*와 같은 기록관리학 분야의 중요한 국내의 학술지에 대한 인용 분석이 기록관리학의 발달 및 성장, 저자의 생산성 및 공동 저작 상황, 저자의 인용문헌 패턴, 특정 주제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학제성에 관한 인용 분석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 기록관리학의 자분야/타분야 의존도, 학문의 융·복합까지 살펴보면서 기록관리학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 [2]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영역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 [3] 김희정. 2005. 저자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의 기록관리분야의 지적 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4] 김희정. 2006.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5]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6]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 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7]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8] 정동열, 김성진. 2010. 문헌정보학 이론과 원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9] 조인숙, 한미숙. 2007.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학회지 게재논문과 인용학술지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89-105.
- [10] Brichford, Maynard. 1988. "Who are the archivists and what do they do?" *American Archivists*, 51(1): 106-110.
- [11] Couture, Carol, & Ducharme, Daniel. 2005. "Research in archival science: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 41-67.
- [12] Cox, Richard J. 1987.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Expanding horizons and continuing needs, 1901-1987." *American Archivist*, 50(3): 306-323.
- [13] Gilliland-Swetland, Anne J. 1992. "Archivy and the computer: A citation analysis of North American archival literature." *Archival Issues*, 17(2): 95-112.
- [14] Kim, Hee Jung, & Lee, Jae Yun. 2008. "Exploring the emerging intellectual structure of archival studies using text-mining: 2001-2004."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4(3): 356-369.
- [15]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online]. [cited 2011.3.15].
<http://www.archivists.org/prof-education/ed_guidelines.as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 [2] Kim, Gyu-Hwan, Jang, Bo-Seong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417-439.

- [3]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4] Kim, Hee-Jung. 2006. "A study on the serial analysis and expansion of research area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6(2): 5-25.
- [5] Nam, Tae-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 [6] Lee, Jae-Yun, Moon, Ju-Young & Kim, Hee-Jung.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al science in Korea wit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45-372.
- [7] Chang, Ro-Sa, & Kim, You-Seung.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
- [8] Jeong, Dong-Youl, & Kim, Sung-Jin. 2010. *Munheon Jeongbohak Irongwa Wonchi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9] Cho, In-Sook, & Han, Mi-Sook. 2007. "An analysis on the articles and cited journals suggested by LIS researcher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2): 89-105.

